

10/21(수) 사사기 묵상 6

사사기 2:11-15

한 세대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수 24:19-2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의 변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겜에 모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위의 말씀(수 24:19-20)은 언약식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례와 법도를 선포했습니다(수 24: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세대 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혼인한 신부가 혼인 서약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변심하여 가버린 것과 같은 꼴이었습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스라엘의 변심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트라우마)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심은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만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이 주는 여러가지 행복에 유혹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주는 행복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차례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1절(“**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13절에 가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바알’은 ‘소유주’라는 뜻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주변 베니게와 아람 족속들이 섬기는 남신으로서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역시 그들이 섬기는 여신으로서 풍요를 뜻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은 모두 농경 사회인 당시에 민족들에게 있어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경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랐으며 또 이들 이방 종교에는 우상당에 창녀들이 배속되어 있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음행에도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14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초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대적을 당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교만해진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금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수 10: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어리석게도 한세대 만에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종종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거기에 더 좋고 행복한 파랑새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가 주신 힘과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사사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의 덫에 빠져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도 결국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맛보게 될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며...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전 1:8)**”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짓 행복을 따라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다룻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지 말고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주관자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이 세상의 거짓 행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철남<멕시코>, 홍성진<페루아마존>, 황윤일<페루>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